

2008년 10월 29일 수 말씀

10년 전에 온 사람들은 내 얼굴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고 집회 때도 봤지만 지난 10년 동안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은 화면으로 만 봤지 실제로 나를 못 봐서 생소해 합니다. 나를 직접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려면 몇 년을 봐도 다 못 봅니다. 지도자들 만 봐도 다 못 봅니다.

사람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 속 썩으면 늙습니다.

공연 하는 거 해봤자 겨울철 눈 녹듯이 순간 지나갑니다. 나 같이 영원하게 가야 합니다. 나는 50년 되었습니다. 산에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50년을 왔습니다. 하늘은 끊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약하니까 금방 가다가 변해버립니다.

전도를 잘 하는 사람은 목회를 하십시오. 그러나 꼭 목회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맞아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면 좋지 않습니까? 것처럼 다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하십시오. 접리는 교회가 아니라 바다 같이 넓기 때문입니다. 바다 같이 넓으니까 해변 가도 놀러가고 하는 것처럼 넓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잘 선택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무리한 삶을 살다보면 가다가 말게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꼭 해줘야 합니다. 안 해주면 안됩니다. 전도는 순간입니다. 애기를 금방 낳지 않습니까? 애기를 낳아서 기르다가 잘못하면 금방 차에 치어죽고 금방 물에 빠져죽고 합니다. 그러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신경은 쓰이지만 굉장히 오래갑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고 길러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가 없으니 7-8시간씩 계속 기도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을 안자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못 먹고, 70일 썩 굶고 다녔어도 표가 안 났습니다. 오히려 먹은 사람이 표가 납니다. 산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것도 표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외를) 돌아다니고 (생명을) 막 쫓아다니다보니까 세계50개국 나라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에 유익이 되게 자꾸 해나가야 합니다.

자꾸 낙심치 말고 혼자 있으면 우울증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리는 차에 매달려서 막 가야 합니다.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 막 매달려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면서 열심히 못한다고 하지 말고 엔진 걸려서 잘 가는 차에 고리 끼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 것은 다 해주십니다. 지구도 보십시오. 돕는 것 없는 것 같아도 매일 지구를 돌리시면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세계를 가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곳이 없습니다. 우주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중국 갔을 때도 보여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데 없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힘들고 어렵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런 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해주고 힘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책임이다. 왜 그렇게 될 때까지 놔뒀냐'고 하십니다. 본인들 책임이 큰 것입니다. 하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만 잡고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부모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부모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애인도 느끼지 못합니다. 본인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착착 해대껴야 합니다. 본인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글도 쓰면 글이 나오고 안 쓰면 안 써지는 것입니다. 잠자면 잠만 계속 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기 달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는 사람은 강하게 잘 합니다. 그와 같이 (뭐든지) 하기에 달렸습니다. 나도 산속에서 처 박혀서 굴속에 있을 때 무섭게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니까 환경에 빠졌습니다. 해외 나갔을 때도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만났습니다. 사람 만나면 시간을 다 잡아먹기에 말씀만 전하고 끝냈습니다.